



미 증시, FOMC 경계심리에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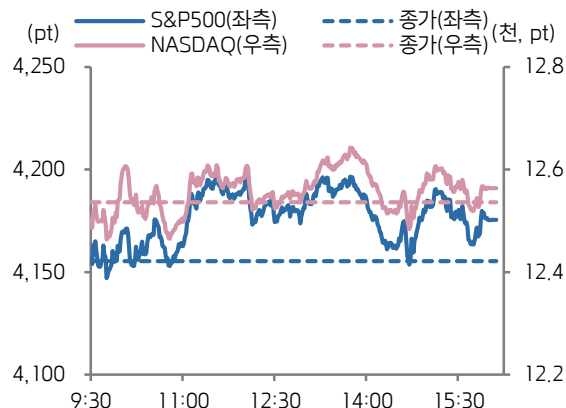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3일 (화) 미국 증시는 전일 장 막판 보인 저가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상승했지만, FOMC를 앞둔 경계감으로 상승폭은 제한됨. S&P500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 이후 저점 인식 강화, 미국 금리 급등세 진정 등에 힘입어 상승폭 1.0%까지 확대. 다만 FOMC를 앞둔 경계심리로 상승폭 일부 반납하며 마감. 이날 미국 3월 공장수주는 전월대비 2.2% 증가(예상 +1.0%)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점, 전일 3.0%를 상회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2.96%) 급등세가 진정된 점 등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 이날 대형 기술주들은 혼조세를 보였으며 가치주 업종들의 강세폭이 상대적으로 컸음(다우 +0.2%, S&P500 +0.48%, 나스닥 +0.22%, 러셀 2000 +0.85%).

업종 중 경기소비재(-0.3%), 필수소비재(-0.2%)를 제외하고 전부 상승. 이날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은 에너지(+2.9%), 금융(+1.3%), 부동산(+1.2%) 였음. IT(+0.2%), 커뮤니케이션스(+0.5%)는 상승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0.8%), 다우 운송 지수(+1.1%)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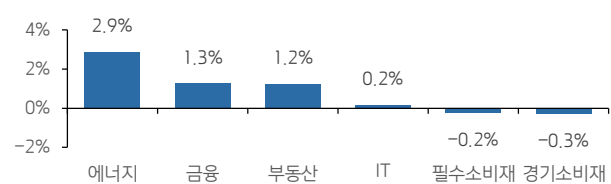
종목별로 애플(1.0%), 알파벳(+0.8%)은 상승, 마이크로소프트(-1.0%), 아마존(-0.2%)은 하락하는 등 대형 기술주들은 혼조세를 보임. 화이자(+2.0%)는 어닝 서프라이즈(EPS 1.62 달러 vs 예상 1.47 달러)로 상승했지만, 에스티로더(-5.8%), 엑스피디아(-14.0%), 체그(-30.3%) 등은 부정적인 실적 내용에 따라 주가 하락. 특히 금융 교육 기업 체그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분기 및 연간 가이드언스를 제시하면서 주가 급락. 추가적으로 월드와이드(-4.3%)는 양호한 실적에 불구하고 연간 가이드언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하락, 로지텍(-1.8%)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올해 가이드언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하락.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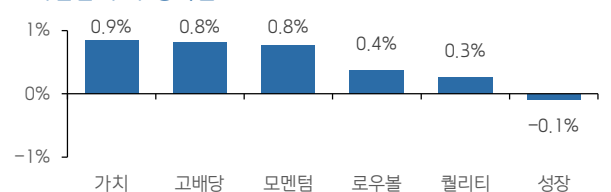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175.48	+0.48%	USD/KRW	1,267.63	+0.17%
NASDAQ	12,563.76	+0.22%	달러 지수	103.47	-0.26%
다우	33,128.79	+0.2%	EUR/USD	1.05	-0.01%
VIX	29.25	-9.55%	USD/CNH	6.65	-0.03%
러셀 2000	1,898.86	+0.85%	USD/JPY	130.12	-0.02%
필라. 반도체	3,044.89	+0.75%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068.62	+1.06%	국고채 3년	3.142	+4.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407	+1.6bp
Eurostoxx50	3,761.19	+0.77%	미국 국채 2년	2.782	+5.1bp
MSCI 전세계 지수	653.57	-0.02%	미국 국채 10년	2.971	-1bp
MSCI DM 지수	2,796.33	+0.03%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72.56	-0.34%	WTI	102.41	-2.62%
MSCI 한국 ETF	67.07	+0.31%	금	1870.6	+0.3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1%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7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61.0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장중 5월 FOMC를 둘러싼 관망심리 심화 가능성 2. AMD의 호실적으로 인한 시간외 주가 급등이 국내 반도체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3. 최근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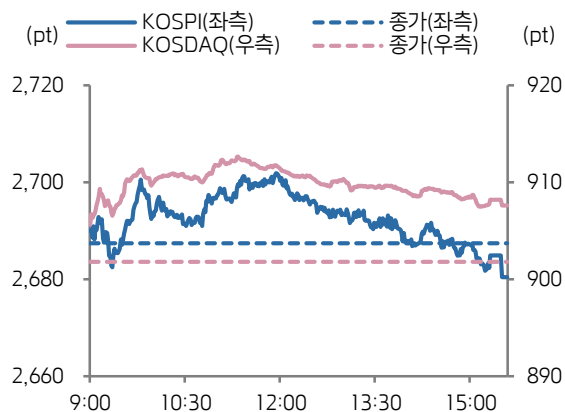
현재 미국 증시는 지난 4월말 폭락장 이후 과매도권 진입 인식 확대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진정을 찾고 있는 모습. 그러나 최근의 반등이 일시적인 반등을 넘어서 유의미한 추세 반등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참여자들의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 전체 증시 차원뿐 아니라 팬데믹 이후 미국 증시를 주도해왔던 빅테크주, 고 밸류에이션 성장주들의 주가 회복력이 취약하다는 점도 시장의 자신감 회복을 저해하고 있는 모습.

결국 자신감 상실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간 매크로 상 조정을 초래했던 이슈 중 하나인 “연준 긴축 가속화”를 시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극복해나갈 지가 관건. 통상적으로 특정 악재가 시장에서 소멸되는 형태는 (1) 해당 악재를 유발한 주체가 그 악재를 풀어주는 것이나(ex: 연준 스탠스가 덜 매파적으로 변화 등), (2) 해당 악재를 주식시장에서 주가 및 밸류에이션 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화해 나가는 것, 이렇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 지을 수 있음.

후자인 “(2)”의 케이스가 진행되는 과정은 시간이 소요되고 주가 조정도 상대적으로 심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 현재는 “(2)”에 가까운 성격이 짙지만, 다행히도 최근 증시 분위기를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발 악재를 점차적으로 소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것이 증시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더 나아가, 매크로 상으로 바닥 확인 이후의 유의미한 반등은 5월 FOMC(5일), 4월 인플레이션 지표(11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1차 변곡점인 5월 FOMC의 경우, 50bp 금리인상, 양적긴축 시행이 기정사실화 됐으므로 이보다는 연준의 인플레 및 통화 경로 변화 여부가 관전포인트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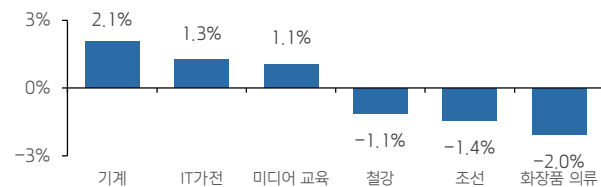
이를 고려 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폭락세 진정, 양호하게 중반부까지 진행된 1분기 실적시즌 효과 등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또 미국 장 마감 후 AMD(+1.4%)가 어닝 서프라이즈 및 가이드스 상향 소식 등에 힘입어 시간외에서 6% 넘는 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최근 전방 수요 부진 논란이 있었던 반도체주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다만 5일 한국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FOMC 이벤트도 5일 새벽에 예정된 만큼 장중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 주체들의 관망 심리가 장중 지수의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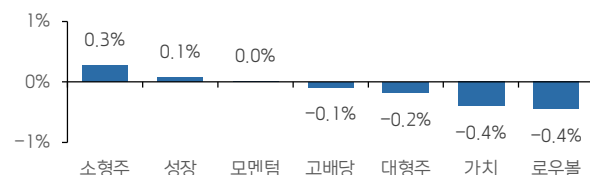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